

얼굴 사용 방법

학과: 한식조리과학전공 학번 : 202311164 이름 : 강준우

1. 얼굴사용방법(서론)

현 사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울은 휴대폰이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 얼굴을 보면 도구 없이 볼 수 없었던 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도구 없이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도구의 발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처리를 통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사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를 통해 접근해 보겠다. SNS에서 타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처리를 통해 구분할 수 없게 도용한다면 당신은 구분할 수 있을까? 당신의 얼굴 또한 타겟이 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탈진실이란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된 정보와 진실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다. 와중 ai 기술이 발전하며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만들어졌다. 이는 타인의 얼굴을 또 다른 타인의 몸과 합성 처리하여 합성 사진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적 처리를 통해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학 기술이다. 이것을 악용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으며 정치적, 국제적 문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딥페이크 기술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되며 사진을 넣기만 해도 만들어지는 딥페이크는 사용이 쉬워 편집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이처럼 악용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하는 좋은 사례 또한 있다.

1)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의사의 생전 얼굴 모습을 복원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고 법정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접근성이 쉽고 누구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의 기술을 제한 해야 한다.

2. 본론

2.1 얼굴 도용범들

딥페이크의 기술은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특정 사람의 얼굴, 신체를 합성하여 사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근육, 목소리의 억양을 따라 하여 원하는 대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술 또한 발전 되어야 한다. 하지만 딥페이크란 기술은 접근성이 쉬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문제를 쉬이 단정 지어 버린다면 언젠가 SNS 영상 속에서 놀아나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전쟁하는 중 한 가지 영상이 올라온다. 바로 젤 렌즈 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하는 영상이 게시된 것이다. 물론 영상은 매우 조작했으며 설득력 또한 없었다. 덜 꼼꼼한 사람도 이를 가짜 영상으로 구분할 정도로 조작하여 거짓임이 바로 나타났다. 만약 전쟁 중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조작하지 않게 영상이 올라온다면 누구나 거짓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딥페이크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점점 진실의 목을 죄어온다. 또 연예인 같은 얼굴 노출이 쉬운 사람들은 이 기술의 더 주의를 두며 경각심을 가져야

1) 조현주, 딥페이크(Deepfake),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터틀 맨, 김광석, 유관순, 나연이 등 딥페이크 기술의 착한 활용 사례, 2022.02.17, 2023.05.25

<https://url.kr/r9z87d>

2) BBC NEWS 코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2022년 3월 20일, 2023년 5월 25일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776475>

한다. 또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음란물에 이를 사용하였다. ³⁾네덜란드 딥페이크 탐지 기술업체인 ‘딥트레이스’가 지난 2019년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스 오브 딥페이크’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96%가 음란물 이라고 밝혔고 음란 영상물 속 25%가 k 팝 아이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음란 사이트에 한국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나와 있으며 한국 연예인 이름 이 나열돼 있기도 하다. 이수정 교수가 딥페이크로 만든 연예인 불법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딥페이크 영상이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거나,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심적으로 몰리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이 문제의 주요점은 아이돌의 인기가 많아지면 합성사진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유포자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유포자를 추적해 잡는다고 해도 또 다른 유포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남용, 악용으로 피해자가 생기며 기술의 악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딥페이크의 기술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

2.2 악용에 가려진 진실

악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들춰지면서 정말 딥페이크 기술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없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의 나쁜 점만을 보고 이에 대해 편협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기술의 편리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⁴⁾법정이나 SNS에 대외적으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기 위해 버추얼 휴먼이라는 자신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방송에 공개하고자 할 때 자신의 얼굴에 모자이크하는 대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려 신변 보호를 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게 되고 시청자들에게 이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추모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의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이헤리티지라는 회사에서는 온라인 가계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인이 된 가족, 순국열사 등 새로운 방식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들을 추모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기술의 어두운 부분만을 바라보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부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기술을 봐야 한다.

2.3 옳은 기술의 사용방법

기술의 양면성을 보면서 우리는 기술의 옳고 그름을 계속 관용 해야한다. 지나치게 발전된 기술을 옳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을 제한 해야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무분별한 기술의 악용을 막기위해 법을 제정한다. 이는 접근성이 쉬운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게 처벌법을 강화하여 기술의 악용이 큰 문제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실질적으로도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경우 2차 가해자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워터마크를 사용함으로써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제한 함으로서 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반론/재반론

3) 나리 김, 딥 페이크: AI 기술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bbc news 코리아, 2021년 3월 12일, , 2023년 5월 23일, <https://www.bbc.com/korean/news-56358085>

4) 조현주, 딥페이크(Deepfake),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터틀맨, 김광석, 유관순, 나연이 등 딥페이크 기술의 착한 활용 사례, 2022.02.17, 2023.05.25

<https://url.kr/r9z87d>

3.1 제한 기준

기술을 제한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기술인 알 필요가 있다. 기술의 사용을 막는 것은 제작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과 같다. 하여 권리를 짓밟지 않고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공적인 단체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뤄진 기준으로 기술이 옳거나 잘못되어 있음을 구분하여 제한해야 한다. 함으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공적인 단체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기술을 제한하다 보면 좋은 사례로 쓰이는 기술마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하여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쓰이는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득이고 어디서 불이익을 주는지 기술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답페이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무서움과 동시에 기술이 주는 유용함을 볼 수 있었다. 또 우리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고 제한하는 기준에 관해 얘기를 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기술을 구분하고 그 기술의 유용함, 불이득, 악용을 항상 검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사회에서 기술을 사용 해야 한다. 어쩌면 철기 시대의 청동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의심하며 얼굴을 매만지던 시절의 기술이 현대사회보다 더욱 올바르게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